

☒ 연구논문

## 고유신토질(固有身土質)의 휴먼웨어적 전개

서윤정 · 유왕진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Unfolding the Eigen Shin-Tou-Jil  
(Proper Body · Earth Materials)  
by the Algorithm of Human-wareYoon-jung Seo · WanKong-jin Yoo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 Abstract

It is really hard for the material factors to basically improve quality of life, since it is the only partial means of the survival and activity of life. Development of Eigen Shin-Tou-Jil(Proper Body · Earth materials), therefore, must be concentrated on providing man with essential meaning of life, not with simply economic advantage.

Eigen Shin-Tou-Jil(Proper Body · Earth materials) which is formed through long passage of time in the original environments that include the climate and nature features of a special region,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like Korea Bong-Sam(a kind of ginseng) of Yellow Earth etc.

Unfolding the Eigen Shin-Tou-Jil(Proper Body · Earth materials) by the Algorithm of Human-ware means the development for manifesting individual eigen motives and traits as subject of behavior(Gene-ware). It is because all plants, animals, inanimate objects, including Human, have evolved with their own values in the ecosystem.

It was reported that a BaekSong(white pine tree), grown well up in TongEeDong, Seoul, Korea had rarely grown up during the period suppressed by Japan. By the developments of Bio-Engineering, we also found that 40% of gene base sequence of C. Elegance(a kind of worm) is identical to that of characteristic

Human.

In this reason, through considering common characteristics between Human and Nature, the developments of Eigen Shin-Tou-Jil(Proper Body · Earth materials) must begin with epoch for manifesting and understanding individual's Eigen motives and traits as subject of behavior(Gene-ware)

## 1. 서론

최근 획일적인 경영기법 및 새로운 사업의 도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은 기업의 존재이유(가치) 그 자체를 다시 질문하여 기업의 총체적인 재창출(reinvent)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23]. 이에 사회속의 기업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 따른 문화 및 제반 여건의 풍토에 어울리는 경영방법 및 새로운 산업이 모색되고[7] 있으며, 특화산업에 대한 관심 및 진행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마켓을 가능케 하는 지식 · 정보 · 통신,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달은 이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듯 기업에게는 공급 및 마케팅 체인을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비용상의 이점, 즉 점거(share)의 확대보다는 타 지역의 국가나 산업체에서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핵심 능력의 발현을 통한 창조적 리더십(leadership)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풍토 및 여러 환경속에서 오랜 시간적 진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인성 및 자원을 의미하는 고유신토질(固有身土質)에 대한 인식 및 계발(啓發)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일례로 삼한사온사(三寒四溫史)와 서해에서 정제된 황토흙 등의 여러 풍토속에서 시간적인 과정을 거쳐 진화되어온 한국의 고유신토질은 봉삼(봉삼은 인삼이나 산삼과 달리 독특한 향기를 갖고 있고 깨물어도 끊어지지 않는 두께 1 ~ 2 mm의 철사 같은 심이 들어있다. 한국일보, 96.5.28)을 위시해, 독일 제약회사로도 수출되고 있는 은행나뭇잎이 지닌 징코민 등으로 나타나는 인자를 지닌 인성 및 자원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유신토질의 계발은 기업의 근본적 존재가치에 대한 회답과 창조적 리더십을 발생케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유신토질 계발에 대한 필요성을 부분적이거나 기업경영 및 시장에 있어서 고유신토질의 제품화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하며, 또한 고유신토질의 계발에 대한 방향 및 접근방법을 물적(物的)인 하드웨어에 대한 인적(人的) 측면인 진웨어(Gene-ware: men's Subject or Hardware)와 물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적 측면인 휴먼웨어(Human-ware)를 통하여 고찰해 보겠다.

이는 기업과 관련된 구성원인 작업자와 경영자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첩적 인자를 통해 상승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전개방법을 더욱 능률적으로 찾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 2. 고유신토질 개발(啓發)의 필요성

제품 및 서비스가 내포한 가치내용은 기업의 본질적 취지 및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윤을 제공하며, 기업의 수준 및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측도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는 기업과 소비자, 더 넓게는 사회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한 중추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의 필수품에서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문화품(中位 效用價) 및 사치품(上位 效用價)으로의 소비자 취향의 이동과 국내외의 기업간 경쟁의 심화 등은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어 경영의 기능활동에 대한 방향을 더욱 절실케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기업에게는 신제품 개발이라는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시간중심(time based) 경쟁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내에서의 경쟁력이나 지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우위를 점하게 하는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등이 도입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와 기업이익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 이른 바의 생물학적 생태 및 사회적인 면에서 제품에 대한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14000 시리즈나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등의 사회적 재평가(Social assessment)가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그 동안 공기나 물같이 자유재로 여겨져 왔던 자원이나 노동 그리고 원시적 희소가치를 지닌 토지 등, 그 바탕의 본원(本源)적 생산요소가 환경문제와 더불어 기업 경영 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등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새로운 제품이 상업화에 성공하여 왔다 하더라도 경쟁업체에 의해서 곧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므로 단명하기 쉬웠다[4]는 것이 경영 활동의 방향 설정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 단편적 예들이다.

이에 특정지역의 풍토 및 여러 환경속에서 오랜 시간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인성 및 자원을 의미하는 고유신토질을 기반으로 한 제품은 새로운 국제시장에서 신규 창업자가 들어오거나, 비록 제품에 대한 기밀이 누설되었다 하더라도 특정지역에서의 인적·물적 및 기타 자원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방하기 힘들었다는 그 역(逆)적인 이점이 있다. 예컨대 치즈의 경우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 치즈를 생산하고 있지만 스위스 고유의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생산된 치즈는 어떤 나라에서도 흉내 낼 수 없고, 스위스 치즈를 최고의 치즈로 인식해 왔다는 사례도 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사람들의 젓가락질이라는 특유한 손감각에서도 먼저 착안되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개개인의 고유한 인성 및 감각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의 가능성을 예시해 준다. 이에 고유신토질 개발은 개개인의 고유 기질 및 인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계기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로서 고유신토질은 제품수명주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미래예측에 근거한 환경적응전략으로서의 기업경영이 아닌, 미래구축의 입장에서

적응력 강화로 나타날 수 있는 독립적 요인으로서 활용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최근 일본인 사이에서 불고 있는 칼슘열풍 뿐만 아니라 칼칼하고 말신하고 할계춤다운 맛이 깃든 것 등으로 착안되어 만들어진 한국기업의 칼슘김치(매일경제, 1999.2.8)나, 토종의 배추와 무 씨앗을 개발한 한국의 종묘기업이 세계적 종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종묘기업과 겨뤄 눈부신 성장(조선일보, 1999.3.17)을 이룬 것은 이러한 예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떠한 자원이나 기술이라 해도 사용자가 인간이며 인간의 기술이므로, 사회·조직적인 풍토와 사용자 개인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고유신도질 계발은 한 부문에서만이 아닌 여러 기업의 다중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보다 능률적이며 구심적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장을 바꾸어 고유신도질 계발에 대한 방향성 및 접근 방법을 마치 물적(物的) 측면에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비유 가능한 인적(人的) 측면에서의 진웨어(Gene-ware)와 휴먼웨어(Human-ware)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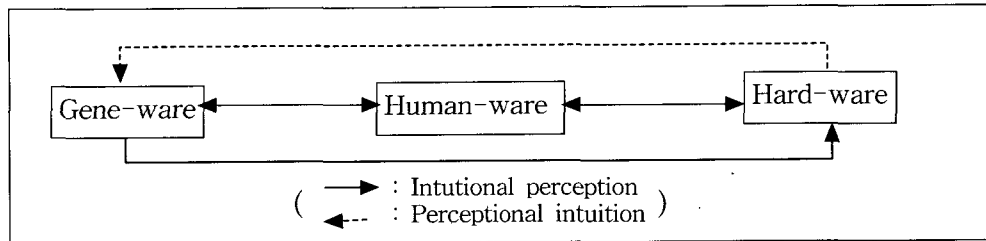
### 3. 휴먼웨어적 전개 고찰

#### 3.1 휴먼웨어(Human-ware)

휴먼웨어는 그 동안 물적측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지나치게 기계적인 처리 및 연산에만 치우친 경향을 땀으로 해, 본원(本源)의 인성과 경영윤리의 개념과 맞물리는 차원을 넘어서 물적인 요인 보다 인적인 요인에 대한 강조, 곧 인적요인에 대한 근본인자를 계발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또 한편으로는 유전자를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이 과학기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휴먼웨어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의 같은 선상에서 파악하기보다는 인간중심, 더 나아가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원래적 가치로 되돌릴 수 있게끔 인간의 생명중심(gene paradigm) 활동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간행동의 근본인자로서 진화론적인 생명적·유전자적 중심을 진웨어(Gene-ware), 외생적 환경 및 제반여건의 중심을 하드웨어(Hard-ware)로 보고, 그 사이에서 교호 매개하여 창조적 성과를 발현시키는 구조와 기능을 갖는 것으로 휴먼웨어를 체계화 할 수 있다[5]. 진웨어는 유정(溜晶: Gene-duum: Gene-kuum)의 시스템(System)이며, 유정(溜晶)은 현상학에 비유하면, 유전자(Gene)의 잔여(殘餘: Residuum)로, 구조주의 철학으로 보면 공시태(Synchronization)의 성격을 갖게된다 [11][6].



< 그림 1 > 휴먼웨어의 구조[10]

여기서 진웨어(Gene-ware)와 휴먼웨어의 관계는 유전자와 문화의 공진화(Gene-culture coevolution) 즉, 생명체의 진화와 사회문화적 진화사이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는 생명발생적 진화와 전통발생적 진화[17]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생명발생적 진화(Biogenetish)는 DNA형태의 유전자로 감수분열(Meiosis)의 수정란(Fertile Ovum)史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정보의 진화를 의미하며, 전통발생적 진화(Tradigenetish)는 사상이나 지식의 형태를 지니고 개인적으로 수집되어 뇌속에 처리 저장되고 또한 어떤 물질적인 전달과 기록을 거듭함으로써 진화된다.

생명발생적 진화는 휴먼웨어(人的 측면의 소프트웨어)의 주체인 진웨어(人的 측면의 하드웨어)의 현상으로 쉽게 바뀔 수 없는 근본적인 것을 지니고 있다.

비근한 예로는, 남유럽과 북유럽 성인들의 생우유 소화능력의 차이에서도 진웨어와 휴먼웨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하나의 식량원으로서 젖이 나오는 포유동물을 사육한 것은 약 9천년 전이었으며, 이러한 젖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유전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약 6천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전자는 그 후 2백세대를 거치는 동안 90%이상의 북유럽성인에게 우유의 이용가치를 극대화시켰다[17].

따라서 진웨어(Gene-ware)는 오랜 시간적 진화 과정을 거쳐 다져져 그 부분이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종속적 대부분의 것은 같아서 인류적 공통성을 강하게 띄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는 인류가 탄생된 후 신체적·생리적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여기서 휴먼웨어는 그 독특한 진웨어가 토질이나 외부환경史라는 조건을 본원에 따른 상황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도구나 방법으로 되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것은 생명의 자기생산[18]이라는 개념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즉, 제반 여건속에서 생명은 생존의의(生存意義)와 생존조건(生存條件)의 계속적인 자기 존속을 위해 끊임없이 외부환경을 지각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표출하는 탄력적 활동을 한다. 여기서 그 탄력성의 원천으로 활동을 거듭 조절하며, 제 감각(眼耳鼻舌身知情意靈)을 도구로 해 작용케 하는 것이 진웨어이며, 이 진웨어로 인해 휴먼웨어(人的 소프트웨어; 진웨어의 도구)가 작용되는 것이다.

예컨대 북유럽성인의 생우유에 대한 소화능력이 남유럽성인 보다 좋은 것은 바로,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조건 하에서 생우유를 하나의 식량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자체 진웨어의 탄력적 활동이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휴먼웨어는 외부 환경속에서 개개인의 주체적인 진웨어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더욱이 역사적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는 진웨어적 발상 즉, 르네상스(Gene-Nascence)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6].

이는 물질 위주의 시스템에서 생명중심의 인(人) 주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현 시대적 과제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2 휴먼웨어적 전개 의의

미국의 제도학과 베브렌(T. Vebrén)이 역사진전의 기초원동력을 인간의 생득적 성벽(性癖), 본능(本能)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고려하는 것도 유익하다. 베브렌은 이 본능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친족부양을 지향하는 친성본능(Instincts of parental bent), 타인이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수취본능(Acquisitive instincts), 다른 사정이 허용한다면 물질이나 노고의 낭비를 경멸하며, 생산적 효율과 유용한 모든 것에 호의를 갖는 공장본능(Instincts of workmanship), 그리고 고정적인 규율 등에서 도피하여 자기 활동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호기본능(Instincts of idle curiosity)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25].

휴먼웨어적 전개 특징은 베브렌이 말한 바에서 본능 즉, 인간의 생득적인 기질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및 기타 기술 등을 탐색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도덕적 규범이나 윤리 등의 수용 및 존속의 여부는 인간에게 내재하는 본성과의 조화여부에 따라서 그 효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과 인간의 정신적·생리적 취향에 맞지 않았던 제도나 기술이 오래갈 수 없었던 그 동안의 사실[17]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위계제도와 조직간의 경쟁관계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실패만을 거듭해왔던 이유를 경영지침서의 낙관적인 처방들에 자극되거나 기술적·경제적 필수사항에 얽매어 결심과 자원 그리고 창의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칫 비(非) 초핵(焦核: focus-kern)적인 유정(溜晶) 곧, 그릇된 소신 때문이며, 오히려 인간의 천성(天性)에 맞는다고 느끼는 바를 본능적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21]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인간에게는 선연(先然)의 것을 되찾는 바, 자신을 끊임없이 다듬으려는 시간지향적인 생명차원의 작용(眞向性: Gene-duction)[11]이 있어, 선천적으로 타고난 다양한 기질이 어울려(齊攸性: Congruency)[12]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문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여러 기질들이 아니라, 본능들의 어울림이 상실되어 단편화되고 부분적인 것만 강조 된, 이른바 사실상 현실화에 파괴된 곧 착란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휴먼웨어적 전개의 의의는 진웨어(Gene-ware)가 내포한 인간 저변의 씨와 뿌리 곧 초점과 핵심의 기질을 인정하면서, 그 진웨어의 시간지향적인 생명차원의 작용인 진향성(眞向性)을 부활(賦活)시키는데 있다.

휴먼웨어적 전개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인간은

생명체로서 생존해야하는 특징이 있어, 그 문화 및 신념체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실지(實地)를 찾는 휴먼웨어적 전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3.3 휴먼웨어적 전개 -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만들면 팔린다」는 판로의 법칙이 상징하고 있는 비용 중심의 근대경제 체제에서는 생존조건(Subsistence condition)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품 확보가 노동의 주된 동기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화폐적 보수만으로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지식·정보·통신의 발달로 상징되는 생산·산업 환경의 글로벌화로 인해 개별 기업에게는 무한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 및 고객 창조만이 요구되고 있어, 그 가능성은 총체적 인간으로서의 인성 및 태도가 내포한 인자의 발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관리자나 경영자 등에게 참선 및 수도를 요구하고 있는 이른 바의 정신경영도 전개되고 있다. 한국경제, 1999.9.30: 매킨지 보고서 인용).

이렇듯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 공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인간 본원(本源)으로의 동기를 유발시킨다.

휴먼웨어는 인간 본원의 진웨어(Gene-ware)의 중심(Criteria)적인 진향성(Gene-duction)을 활성화시키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절에서는 실지(實地)적 탄력성의 효과를 위해 경제활동의 내부적 동기와 외부 유인적인 측면을 찾아 휴먼웨어적 전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① 경제활동의 내부적 동기

사업이나 노동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가 부나 재산의 축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선진 기업에서, 이윤을 소유소득으로 획득하지 않는 전문 경영자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투기나 사채에 투자하지 않고 생산적 사업에 투자를 행하는 이른 바의 엔젤(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하다[26]. 또한 금전적 보수 등의 외적인 보강에 의해 작업 동기를 해치는 결과[15]도 있어, 부와 재산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22].

동일한 육체적 에너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운동은 하나의 오락으로 인식되고, 노동은 강제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진웨어(Gene-ware)가 내포한 생기(vitality)의 발현유무에 의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만들고 무의미하게 하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소외인 것이다. 즉, 노동은 생산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우선되는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진웨어의 발현 즉, 즈네상스(Gene-Nascence)의 양식으로서 자기 창조행위이며,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직업이란 인간이나 사회가 아닌 신으로부터 주어진 소명(Calling)이어서,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엄숙함과 존엄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3]. 그리고 「일은 모두 불행(佛行)이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심 성의껏 수행해 나가면 바로 그것이 자신을 성불(成佛) 시키는 것이다」 [1]라고 상징되는 청교도 정신의 그 초점과 핵심 그리고 불교정신의 그 초점과 핵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원동력인 근검절약, 자기 책임 및 부의 축적을 도덕적 성취로 인식하는 캘비니즘(Calvinism)과 청교도 사상이 새로운 발전의 틀을 확립시키는 하나의 지침으로 제시되기도 한다(한국경제, 1999.3.4: Turbo Capitalism 서평 중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노동이 갖는 초핵(focus-kern)적 현상이 인간의 원래적 기질, 즉 진웨어(Gene-ware)가 지닌 진향성(眞向性: Gene-duction)의 탄력적 활동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 ② 경제활동의 외부적 유인

개개인의 경제활동은 우선 생리적 요건의 충족 즉, 생존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조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은 더 이상 금전적인 보수만의 유인으로는 창의력이나 자발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활동의 외부 유인적 요인은 테일러시스템과 포드시스템에서 잘 나타나 있다. 물론 테일러나 포드 시스템에 대해 기계적이라는 오해된 비판도 있지만, 경영관리 및 산업공학(Industrial Engineering)의 모체라는데 의의가 큰 것이다.

테일러는 청교도 정신의 기반인 근검·절약을 강조하면서 또한 정신개혁의 현실화를 위하여, 포드의 경우는 기업의 근본의의는 영리추구가 아닌 봉사기관(public service)에 두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의 제요소를 선택(epitome) 활용하여 형태적으로 보면 과학적 관리기법, 포드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체계화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전자는 노사화합을 이루어 작업자와 경영자의 상생이익을, 후자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생이익을 가져왔다.

특히, 포드의 경우를 보면 포드는 농민에게 마차대신 힘있는 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이 꿈 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포드는 멜콘슨과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도중에 멜콘슨이 자동차 당 이익이 큰 고급승용차를 만들고자 하여서 포드와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다. 이때 경영진들은 멜콘슨을 추출하여 보통사람들의 차를 만들려는 포드의 꿈이 포드 자동차 회사의 기본전략으로 정착된 것이다[2].

이처럼 테일러나 포드가 성과급제나 컨베이어(conveyor) 등의 기법이전에 「청교도 정신」이나 「봉사기관」 「경쟁에 뜻을 두지 마라」를 중시했던 것은 경제활동에 대한 인간의 본래적 태도를 강조했던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즉, 테일러나 포드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를 이를테면 진웨어(Gene-ware)의 자연스러운 활동양식으로 이해하여, 이에 대한 공감이나 공명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휴먼웨어적 전개는 인간행동의 근본인자인 진웨어를 이해하고, 외부환경속에서 진웨어의 발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여러 인자들을 선택하고 재배열 할 수 있는 형태



적 기법(Craft)의 틀(framework)을 모색하는 것으로, 진웨어를 발현시킬 수 있는 매개체적인 인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 4. 固有身土質의 휴먼웨어적 전개

고유신토질은 특정지역의 풍토 및 여러환경속에서 오랜시간적 진화과정을 거쳐 형성된 특색 있는 인성 및 자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유신토질은 그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 생태계와 생명권을 구성하는 필연적 요소로서, 특정지역의 고유신토질 계발은 타(他)지역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해 상생(相生)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지역뿐 아니라 그 외 지역에도 유익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얕은뱅이 밀」이 인도와 파키스탄, 멕시코 등의 중남미로 퍼져 나가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인류를 살려 놓았던 것(경향신문, 1997.8.23)도 이러한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배/피지배, 우월/열등 등과 같은 인간 및 지역 그리고 자원에 대한 획일적인 관점은 고유신토질이 지닌 나름의 가치를 매몰시킨 결과로 나타났었던 경우가 많았었다.

비근한 예로서, 주변 연안해역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수산·생명자원의 보고인 갯벌의 경우, 쓸모없는 황무지 혹은 오염물질의 야역장이라는 오해된 인식으로 인해 개발되어, 결과적으로는 파괴된 경우가 있어 왔던 것이다.

과거 석유나 석탄[24]등의 경우 그리고 일본의 ‘젓가락질’이라는 특유한 손감각의 산업적 활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자원 및 고유 기질의 개성이 지닌 특징 및 역할이 인간에게 이해됨으로써 자원으로 취급·활용되어왔던 것처럼, 전 세계적 생태계와 생명권에서의 고유신토질이 차지하고 있는 필연적인 역할 및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생명공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연장과 질병예방에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유전학적 정보들이 생물학적 무기의 개발 - 일례로 특정 민족만 살상할 수 있는 - 에 이용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녹색신문, 1999.2.27)는 것은, 고유신토질이 지니고 있는 나름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회나 개인의 태도에 대한 방향성의 중요성을 예시해 주고 있다.

또한 간경화에 걸린 동생을 간호하다 오리나무가 해독작용을 하는 점에서 착안하여 상품화가 된 「여명 808」(경향신문, 1998.9.2)이나,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접착력이 낮은 접착제를 개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회사의 분위기로 탄생된 3M의 「포스트잇」을 보면, 개개인의 적극적인 행동과 시행착오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회사 전반의 협력적인 분위기는 잠재되어있는 고유신토질에 대한 인식 및 계발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고유신토질의 휴먼웨어적 전개는 고유신토질 계발을 위한 방향성과 다중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심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개개인의 진웨어(Gene-ware) 발현을 위한 매개체적인 관점에서의 고유신토질 계발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유신토질의 휴먼웨어적 전개 과정을 기업과 관련된 구성원인 작업자와 경영자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승이익을 위해 즉, 진웨어(Gene-ware) 발현에 유익 할 수 있도록 기업 구성원 측면과 기업의 이윤 및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4.1 기업 구성원의 측면 - 작업자와 경영자의 공중(共重)집합 중심으로

1할의 노동시간을 위해 9할의 생활시간을 희생하여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더라도, 인간은 모두 예외 없이 비인간화 될 수밖에 없다는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24], 국가발전의 척도가 GDP, GNP 대신 경제성장과 사회적 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 실질진보지수)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경제성장이 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trait) 및 고유동기(Gene-ware: eigen motive)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외부환경과의 관계속에서 발현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간에 대한 가치부여 이전에, 인간 또한 생명계안에서 각자의 독특한 형질이 시간적 과정을 거쳐 조성되어 왔으므로, 저마다 나름의 동기 및 기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간 인체와 자연과의 관계 예컨대, 반무의식적으로 다른 생물을 찾는 인간의 생물 선호증[19]과 잘 자라던 서울 통의동의 백송이 일제 36년간만 거의 자라지 않았다는 측정결과[16] 그리고, 흙속에 사는 선충(線蟲: C. Elegance: 조선일보, 1998.12.12)의 유전자 염기(base) 서열 중 40%가 인간과 동일하다 등의 연구결과는, 자연을 통해 인간을, 인간을 통해 자연을 알 수 있는 즉, 인간과 자연의 공중집합(共重集合)체를 예시 해주고 있다.

일례로 한국의 기후와 풍토속에서 진화되어온 여러 동·식물 및 기타의 것 들, 예컨대 음식문화에서 김치와 같은 **칼칼한** 콤팩트(compact) 음식, 한국인만 신는 **말신한** 고무신(고무신은 항장력(抗張力: Tensile strength), 인장률(引張率: Elongation), 척력(脊力: Modulous), 내마찰력(耐摩擦力: Friction resistance), 내복원성(耐履歷性: anti-hysteresis), 내구성(耐久性: Age in resistance), 충격력(衝擊力: Impact strength) 기타 여러 가지 성질과 모양을 지녔으나 균형을 이루고 있다), 720° 각도의 **활개춤**을 비롯하여[10], 익룡 및 공룡의 서식지와 같은 한국지역의 특징은 한국인이 지닌 진웨어(Gene-ware)의 특징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고유신토질 계발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웨어에 대한 이해 및 발현에 대한 하나의 계기(epoch)로서 출발되어야 한다.

#### 4.2 기업의 이윤 및 사회적 측면 -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중(共重)

##### 집합을 중심으로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가치추구는 상충(trade-off)적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경영활동의 최종적인 산물인 제품은 사회에 제공되지만, 기업

은 사회속에서 노동력을 제공받고, 사회속에서 투자를 유치하며 재무를 보완하고 또한, 사회속에서 건전하고 확고한 수요로 인해 원활한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8].

이에, 포드가 말한바의 「봉사기관」, 「보통사람을 위한」 등의 민간생활용품을 지향한 제품개발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치품 필요성향에 따라 소비자 계층을 대산층, 소산층, 중산층으로 구별하는 것이 민간생활용품을 지향하기 위한 기초 개념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9].

여기서 대산층(White color: High class)은 과거의 자본을 보유 비축하고 있으며, 보수적 성향이 짙은 계층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되는 가치선호품을 사치품으로 볼 수 있으며, 소산층(Blue color: Low Class)은 창조력을 발휘하고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추진력을 지닌 계층으로, 이에 해당되는 제품은 필수품인 경향이 크며, 중산층(Middle Class)은 대산층과 소산층의 균형유지와 매개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당해 균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이에 해당되는 제품이 문화품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의 안정 및 성장을 위해서는 소산층과 중산층에 크게 영향을 주는 필수적 문화품을 지향한 고유신토질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 기업에게도 가능성 있는 시장기회와 새로운 소재나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그 응용대상이 다양하다는 이점을 제공하므로 기업의 안정 및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필수적 문화품을 지향한 고유신토질 개발은 과도한 제품 차별화에 의한 자원낭비의 억제와 그 과정에서 환경과 생태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주체적인 진웨어를 이해하고 발현하는데 더욱 유의할 수 있는 것이다.

## 5. 결론

고유신토질은 예컨대 한국의 경우 봉삼이나 은행나무의 징코민 등으로 나타나는 인자를 지닌 인성 및 자원으로, 특정지역의 풍토 및 여러 환경속에서 오랜 시간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인성 및 자원을 의미한다.

이에 「가정(家: oikos)을 다스린다(規範: nomos)」의 뜻을 지닌 경제의 어원이나 「생명의 양육」과 「생의(生意)」의 뜻을 지닌 기업(business)[20]의 어원에서도 나타나는 바,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계발하여 생존조건(生存條件)과 생존의의(生存意義)를 찾고자 하는 자생력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고려하면, 고유신토질은 특정지역의 기업활동 및 산업의 동인적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어 보인다.

예컨대 당시 노사간의 불일치로 인한 생산상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 그 지역 특유의 초기정신인 퓨리탄니즘의 재현으로 이를 해결하였던 테일러 시스템 그리고, 지역 토산물을 가공하는 「1.5차 산업」, 오랜 전통의 기예를 최첨단의 기술과 더불어서 지원하는 등의 전통의 현대화가 ‘기적적’이라 표현되는 일본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도 평가[13]되는 것 등을 통해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고유신토질의 제품화는 기업경영에 있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글

로벌 마켓을 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신규 참여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이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그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원이나 소재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인간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인간 태도의 방향성에 기인하며, 또한 기업적인 결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뢰에 바탕을 둔 협조와 조화 등의 어울림은 필수적이다.

이에, 기법(Craft: 메커니즘)의 주체인 하드웨어와 그 도구인 소프트웨어에 대응시킨 태도(Attitude: 휴머니즘)의 내포(connotation)로서 진웨어(Gene-ware)와 외연(denotation)으로서의 휴먼웨어(Human-ware)는 고유신토질 계발을 위한 능률적인 접근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진웨어는 생존의의(生存意義)와 생존조건(生存條件)의 지속적인 자기존속을 위해,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교차감응을 한다. 이는 생명체의 기본적 작용인 이를테면 자기 내(內) 진향성(眞向性: Gene-duction)으로 인해, 여러 가지 원시적 본능들이 어울려져(齊攸性: Congruency) 외부환경을 지각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표출하는 것으로 여러 사상과의 교차하는, 곧 그 교차탄력성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휴먼웨어는 진웨어가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탄력적 반응을 할 때 작용케 되는 제 감각의 도구(眼耳鼻舌身知情意靈)로서, 그 기능의 기준은 진웨어의 진향성 활동에 있어서 최단 가능한(fast and shortest feasible solution) 수신 및 발신의 방법을 제공하는 매개체적 역할의 수행인 것이다.

이에 휴먼웨어적 전개의 의의는 다중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어울려(齊攸性)질 수 있도록, 시간지향적인 생명차원의 작용(Gene-duction)을 부활(賦活)시키는 매개체적 인자를 교호·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신토질의 휴먼웨어적 전개는 각각 특유의 환경속에서 오랜 시간적 진화 과정을 거친 인간행동의 근본인자인 진웨어를 이해하고 발현시키는 매개체적인 관점으로 노동을 강제적인 것에서 생명의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고유신토질 계발이다.

이는 개개인이 지닌 고유 동기 및 기질의 발현과 필수적 문화품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 및 사회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조건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그 소비자와 생산자, 작업자와 경영자의 상생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배/피지배, 우월/열등 등의 인간에 대한 가치평가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된 지역에 대한 가치평가 나름의 안에서, 오랜 시간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고유신토질에 대한 참다운 가치를 등한시하였다. 따라서 불신풍조와 피해의식이 커져가는[14] 변환기의 현재의식과 내부적으로는 4색 당과, 외부적으로는 4대 강국이라 상징될 수 있는 끊임없는 외환 및 지도층에 대한 원한과 불신에 기인한 듯한[1] 전통적인 잠재의식(진화적인 관점에서의 우리의 1000年史는 바로 어제의 일과 같다)을 뚫는 바탕으로, 인간의 주체적인 진웨어(Gene-ware)의 특징을 부활시키는 것, 즉 즈네상스(Gene-Nascence)가 세계화를 맞이한 지금부터의 창조이다. 이것의 발생과정에 고려될 것은 최초의 인류대 인류戰(6·25), 최초의 인류대 인류의 화해(88

Olympic: 沒共)속에서 자라온 한반도인의 그 주체적인 진웨어와 서(西)오리엔트(orient)에서 출발한 문명이 미국을 경유 동(東)오리엔트를 겪어, 5대양 6대주의 나루터가 되는 계기가 더욱 그렇다[12]. 또한 유전자원의 확보 등 생명과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현실은 더 이를 필수로 하는 동기가 된다.

## 참고문헌

- [1] 김두겸(1995), “일본자본주의 정신 그 형성배경과 과정,” 「삼성연구보고서」, 1권, pp. 3-5.
- [2] 문원택, 김원석(1996),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AIM산업경영연구소, pp. 219-225.
- [3] 박재광(1998), “아시아적 가치의 위기와 활로 모색,” 「삼성연구보고서」, 10권, pp. 20-25.
- [4] 백방선(1984), 「제품관리론」, 무역경영사, p. 141.
- [5] 서윤정(1997), “기업의 부화와 능력의 균형을 위한 휴먼웨어적 접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 32-33.
- [6] 서윤정 · 유왕진(1998), “쿨롱 법칙을 이용한 휴먼웨어에 관한 연구,” 「대한설비관리 학회지」, Vol. 4, No. 1, pp. 117-126.
- [7] 이관희(1990), 「오늘의 한국적 경영」, 경문사, pp. 7-10.
- [8] 이득희(1972), “윤리경영수업과 개방체제실험 I,” 「건국대학교 학술지」 제 12집.
- [9] 이득희(1974), “윤리경영수업과 개방체제실험 II,” 「건국대학교 학술지」, 제 14집.
- [10] 이득희(1996), “창조적 고유탄력성에 관한 연구(I),” 「건국대학교 학술지」, 제 40집.
- [11] 이득희(1997), “창조적 고유 탄력성에 관한 연구(II),” 「건국대학교 학술지」, 제 41집.
- [12] 이득희(1997), 「信義業」, 녹색신문사.
- [13] 이어령(1991), 「정보사회의 기업문화」, 한국통신기업문화진흥회, pp. 310-320.
- [14] 이학용(1994), 「국가경쟁력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국경제신문사.
- [15] 정양은(1991), 「심리학 통론」, 법문사, p. 348.
- [16] 지성과 패기(1994), 선경그룹홍보실, 9, 10월호, pp. 78-83.
- [17] 프란츠 부케티츠, 김영철 역(1999), 「사회생물학 논쟁」, 사이언스북스, p. 120, pp. 119-122, pp. 161-163.
- [18] 린 마굴리스. 도리언 세이건. 황현숙 역(1999), 「생명이란 무엇인가」 지호, pp. 50-53.
- [19] Edward O. Wilson. 황연숙 역(1995), 「생명의 다양성」, 까치, 1995, pp. 378-380.
- [20] Geuss. A. D, 손태현 역(1999), 「살아있는 기업」, 세종서적, p. 12.

- [21] Nigel Nicholson, 이왈수 역(1998), “인간행동의 선천성과 기업경영,” 「HBR」, November-December, pp. 104-121.
- [22] Robert E. Shanon(1980), 「Engineering Management」, Jhon Wiley & Sons, pp. 180-181.
- [23] 노나카 이쿠지로. 나상익 역(1998), 「지식경영」, 21세기북스, p. 32.
- [24] 나카무라 하사시. 유형근 역(1995), 「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한 살림, p. 45, p. 77.
- [25] 松尾博(1996), ウェブレンの人と思想, アメリカ經濟思想史の一斷面, ミネルウア書房, p. 73.
- [26] 송희식(1998), <http://www.donga.ac.kr/~hssong/e330.html>